



교섭 해태에 노조 무시·단체행동 방해? 그렇다면 파업!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14일 전 조합원 순환 파업 돌입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일손을 놓았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14일 오후 조합원 순환 파업에 돌입했다. 전체 조합원이 부서별로 돌아가며 4시간 파업에 참여한다. 지회는 지난 10일 진행한 확대간부 4시간 파업에서 전 조합원 순환 파업으로 그 규모를 확대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 지난해 1월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생겼다. 높은 노동강도, 임금 문제, 강압적인 문화 등으로 노동자들 불만이 터져 나왔다.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용자 측은 거부했다. 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GGM 사측 거부로 노조 생기고 10개월만 단체교섭 상건례 열려

지난 10월 지회가 파업권을 확보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 끝에 사측은 10월 25일 교섭장에

나왔다. 노조 생긴 지 10개월 만에 노사가 처음 교섭장에서 마주한 것. 지회는 당시 전남지노위 중재로 쟁의행위권을 포기했다.

교섭이 열렸지만, 사측 태도는 여전했다. 사측은 “사람이 부족해 근무 시간에 교섭하기 어렵고, 회사 내에 마땅한 장소가 없다”라며 단체교섭을 근무 시간 이후 외부에서 열자고 우겼다.

지회는 사측에 ▲금속노조 인정 및 노조활동 보장 ▲기본급 15만9천원 인상 ▲직능급제 폐지 ▲호봉제 실시 ▲격려금 차등 지급 폐지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임금과 노동시간을 노사 교섭이 아닌 ‘상생협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어깃장을 놓았다.

지지엠 노사는 두 달 가까이 교섭장에서 만났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지회는 지난 12월 말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로 쟁의권을 얻었다. 지회는 이번 조합원 순환 파업을 1월 4주 차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김진태 지회장은 <금속노동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파업은 결국 사측의 노동조합 부정·단체교섭 거부 탓”이라며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지엠 노조 결성은 유감이라는 발언을 내놓자 사측은 더 강경해졌다”라고 토로했다.

특하면 지회 현수막 없애고 관리자들 몰려와 선전전 방해

김진태 지회장은 “사측이 노동조합을 인정하면 갈등은 해소된다”라며 “노사 문제와 임단협 요구를 노사 교섭장에서 다루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상생협의회를 계속 고집하는데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사측은 지회가 현수막을 걸면 무단 철거한다. 관리직을 동원해 노동조합 선전전을 방해하기도 한다. 사측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은 물론이고 합법적으로 확보한 쟁의권도 무시하기 일쑤다. 김진태 지회장은 사측 태도에

“말 그대로 반헌법적”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지지엠은 흔히 광주형 일자리로 불린다. 정부와 광주광역시가지지엠 설립을 추진하며 국내 완

성차 공장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대신 주거·보육 등 사회적 임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태 지회장은 “지지엠 사례를 통해 금속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많은 제조업 노동자가 지역 상생형

일자리 실체를 깨닫길 바란다. 허구 그 자체”라며 “상생이라는 명목으로 저임금과 낮은 노동조건을 고착화, 합법화하려는 정부와 자본의 꼼수”라고 단언했다.

“노동부는 태경산업 노조파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 해결하라” 금속노조 대구지부, 15일 태경산업·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열어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1월 15일 오전 10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앞에서 ‘태경산업 노조파괴자 퇴출, 단협 해지 철폐, 노조활동보장, 수수방관 노동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태경산업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행위를 눈감아주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며, 신속한 조치 및 특별 근로감독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했다.

장세은 금속노조 대구지부장은 “태경산업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를 통보한 시점, 새로운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다”라며 “태경산업 심상수 상무는 과거 포항 DKC 노무 관리자였다. 심상수는 금속노조 포항지부 DKC지회를 상대로 술한 노동 탄압을 저질렀다”라고 설명했다.

노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심상수 태경산업 상무는 과거 포항 DKC 노동자 파업을 유도했고, 1년이 넘는 파업 과정에서 단협 해지, 노동자 해고, 손배 가압류까지 강행하며 노동조합을 압박했다. 그 결과 DKC지회는 해산되었고, 당시 지회 간부들은 해고돼 복직 투쟁 중이다.



심상수 상무는 태경산업 노동자들이 2014년 노조를 만들고 10년 동안 개선해 온 노동조건을 단협 해지로 단번에 후퇴시켰다.

장세은 대구지부장은 노동부를 향해 “현재 노동청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정부 지침, 방침을 핑계 삼아 수수방관하고 있다”라며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노동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내세워 노사가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바란다. 태경산업 사측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일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마련하여 막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태경산업현장위 조제식 현장 대표가 노동부 서부지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태경산업 조합원들은 노동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노동청과 전면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진아 대구지부 교육선전국장